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 14권 2003년 11월 8일

디지털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Housing Lifestyle of One Person Households with the Perspective of Digital Placemaking

조성희* · 박수빈** · 황미리***

Cho, Sung-Heui · Park, Soo-Been · Hwang, Mi-ri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housing lifestyles of one person households (OPH) with the perspective of digital placemaking in order to suggest the planning criteria for OPH house.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accomplished by 145 OPH.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1) OPH's housing lifesty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composed of ten factors. (2) The user preference for the space organization was varied by four types of housing lifestyles. (3) Most OPH required the informational appliances and their needs for other digital appliance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by four types of housing lifestyles.

키워드 : 1인 가구, 주생활양식, 디지털화

Keywords : One Person Household, Housing Lifestyle, Digital Placemaking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주거는 물리적 공간인 주택과 거주자의 일상생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사회적·물리적 실체로서 그것이 속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주택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개념 및 태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가구유형은 공간사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거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해결되던 생활 서비스가 사회나 기술의 발달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기술이 주거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변화 측면에서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을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계획의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이용한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40대의 1인 가구로 하였다. 조사대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진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고, 새로운 문화의 보급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대의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정회원,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이학박사
***정회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조사는 2003년 8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여 145부를 회수하였다.

2. 디지털화와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

2.1. 디지털에 의한 생활과 공간의 변화

미래의 주공간(住空間) 구성이나 설비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지능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이기정, 2001, Hasegawa, 1999; Mitchell, 1995, 1999; Negroponte, 1995; Philips Design, 1999).

디지털화에 따른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장소 없는 주소들의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에 의해 재택근무뿐 아니라 쇼핑, 교육, 오락 행위가 주택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Mitchell(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은 디지털로 바뀐 활동들이 재조합(recombining), 재구축(regrounding)되는 장소로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에 의한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로로의 이동은 건물의 파사드 또는 출입구를 대신하는 인터페이스(스크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페이스는 장소간의 이동뿐 아니라 공간의 확장과 변형 또한 가능하게 한다(Negroponte, 1995). 거주자는 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며, 필요한 경우 외부로 보여주기도 한다. 인터페이스로 인해 물리적 공간에서 내·외부 공간의 구분에 의한 공(公)·사(私)의 구분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김광현 외, 2000).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감각과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됨으로써 지능적 공간을 구축하는 바탕이 되었다(Mitchell, 1999, p.61). 지능적 공간으로서 주택은 거주자의 요구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외부 환경의 변동에 스스로 적응할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으로 프로그래밍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또는 아날로그 행위와 생활은 여전히 주공간(住空間)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될 것이다(Gates, 1996; Mitchell, 1999; Horon, 2000).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다라고 집에서의 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직접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면적 의사소통과 같은 일상생활은 지속될 것이고, 단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완·증진될 것이다. 거주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상주할 공간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며, 주공간(住空間)은 기존의 주생활뿐 아니라 분화되고 변화되어진 형태의 주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2.2. 1인 가구의 주요구(住要求)

1인 가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1]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11월 현재 15.5%로 1980년의 4.8%, 1990년도에는 9.0%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18.4%와 21.3%에 이를 전망이다(통계청, 2002).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유형을 위해 지어 놓은 집에서 생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공간적인 동선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보다 주택 선택시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주요구(住要求)를 나타내게 된다(이은정, 1996). 이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주택의 계획과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유형으로는 원룸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등의 고층 집합주택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미니원룸주택, 고시원, 코쿤하우스 등 샤워실, 세탁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초미니 주택과 '원룸텔',

1) 프랑스 독신 가구 갈수록 증가, 조선일보, 1999. 10. 28.; 9년 뒤 도쿄 50%가 독신, 조선일보, 2001. 3. 28; 호주 절반이상 가정 자녀없어...23%가 독신, 조선일보, 2002. 6. 18.

'아파텔' 등 내부집기가 잘 갖추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평면형을 반영한 아파트형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의 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유형이 개발되고 있다(매일경제, 2003. 1. 17; 조선일보, 2003. 4. 2).

1인 가구의 주요구는 성(性)과 직업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허현경, 1998), 주택유형과 내부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요구는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다(심은실,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계획을 위한 주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양식보다 주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가구의 특성

조사대상의 가구는 남(66 가구, 45.5%)/여(79 가구, 54.5%) 및 직장인(74 가구, 51%)/학생(또는 무직)(62 가구, 42.8%)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령은 평균 25.9세(S.D.=3.6세)이고 20대인 가구의 비율이 89.8%(130 가구)로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은 평균 137.1만원(S.D.=75.7만원)으로 평균 가계소득을 훨씬 밑돌았다[2].

주택유형은 원룸주택이 가장 많았고(57가구, 39.3%), 이 외, 연립·빌라·단독주택(34가구, 23.4%) 및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고층집합주택(28가구, 19.4%) 등 다양한 주택유형에서 거주하였다. 주택규모 평균은 14.5평(S.D.=7.6평)으로 8-10평(37가구, 26.8%), 11-15평(44가구, 31.9%) 사이의 비율이 높고 7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10.9%(15가구)에 이르렀다. 주택소유형태는 임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임대방식은 전세, 보증금+월세, 월세 등 다양하였다. 거주기간은 1년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80가구, 55.2%).

표 1. 조사대상 거주가구 특성

구분		가구수(%)	구분		가구수(%)
성별	남	66(45.5)	주택 규모 M=14.5 S.D=7.6	7평이하	15(10.9)
	여	79(54.5)		8~10평이하	37(26.8)
전 체		145(100.0)		11~15평이하	44(31.9)
직업	전문/관리직	36(24.8)		16~20평이하	23(16.7)
	사무직	38(26.2)		21평이상	19(13.8)
	기타	9(6.3)	전 체		138(100.0)
	무직/학생	62(42.8)	방수	원룸형	43(31.6)
전 체		145(100.0)		1개	35(25.7)
연령 M=25.9 S.D=3.6	24세이하	54(37.2)		2개	43(31.6)
	25~29세	76(52.4)		3개이상	15(11.1)
	30세이상	15(10.2)	전 체		136(100.0)
전 체		145(100.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4(9.7)
월평균 소득 M=137.1 S.D=75.7	50만원이하	18(12.6)		전세	53(36.6)
	51~100만원	46(32.2)		보증금+월세	45(31.0)
	101~150만원	34(23.8)		월세	29(20.0)
	151~200만원	27(18.9)		기타	4(2.8)
	201만원이상	18(12.6)	전 체		145(100.0)
전 체		145(100.0)	거주 기간	6개월이하	39(26.9)
주택 유형	원룸주택	57(39.3)		6-12개월이하	41(28.3)
	연립·빌라·단독	52(35.8)		13-18개월이하	24(16.6)
	고층집합주택	28(19.3)		19-24개월이하	16(11.0)
	기타	8(5.6)		24개월이상	25(17.3)
전 체		145(100.0)	전 체		145(100.0)

3.2.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 유형

주생활양식은 '주생활에 대한 생활특성(주생활태도)'과 '주공간에 대한 생활특성(주공간태도)'으로 구성된 주생활양식 측정도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주생활양식 측정도구는 주생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박수빈, 2001; 허영숙, 1997), 신세대 생활양식과 주거선호에 관한 선행연구(조명은, 1999), 그리고 디지털화에 따른 생활과 공간의 변화에 관한 문헌(이기정, 2000; Horan, 2000; Mitchell, 1999)에서 참고로 하여 각각 2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주생활양식 유형은 주생활태도와 주공간태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각 차원의 구성요인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주생활태도와 주공간태도에 대한 1차 요인분석[3]의 Scree Test 결과 각 구성요인의 수를 4개와 6개로 결정하

2) 2003년 2/4분기 평균가계소득은 282.8만원이고, 2인 가족의 경우 222.7만원, 3인 가족의 경우 267.3만원이다.

3) 요인 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법을 사용하고, 요인회전은 직각회전방법(orthogonal method)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2. 주생활태도 구성요인

	사교 생활	여가 생활	환경 친화	편리 추구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대화/교류를 위해 이메일, pc통신을 자주 이용한다.	.80	.11	.01	.02
생일이나 축하행사시는 친구나 친지를 집에 초대한다.	.75	-.06	.15	.23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63	-.08	.23	.21
하나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 있다.	.59	.27	-.10	.10
남성의 가사 참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47	.05	.19	-.02
컴퓨터(pc) 통신이나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	.40	.20	-.23	-.24
휴식/여가를 위해 1년에 2번 이상은 여행을 가야 한다.	.27	.76	-.04	-.12
평소 생활비를 절약하더라도 레저생활을 즐기고 싶다	.38	.70	-.11	-.03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5	.68	.11	.24
체중과 몸매에 신경을 쓰고 있다.	.06	.61	.24	.22
아침식사는 가급적 빵, 우유, 영양음료, 선식 등 간편식으로 먹는다.	-.05	.45	-.24	.29
재활용/재생용품(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관심이 많다.	.07	.05	.83	-.03
환경보호 차원에서 1회 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05	.04	.81	-.10
공기오염방지를 위해 미래에는 대체에너지(태양열, 풍력)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6	-.01	.66	.13
일반 세탁물도 세탁소나 셀프클리닝에 맡기고 싶다.	-.06	.26	-.27	.68
간단한 질병은 병원 홈페이지나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유료로 상담하거나 진료, 처방을 받을 의향이 있다.	.17	.02	.14	.64
식사준비에 드는 시간은 적을수록 좋다.	.03	-.03	-.02	.56
인스탄트식품이나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줄이고 싶다.	.03	.20	-.40	.52
인터넷 교육이나 e-book(전자책)을 많이 활용하고 싶다	.13	.14	.16	.42
eigen value	2.7	2.4	2.4	2.3
communality	14.0	12.5	12.5	10.7
KMO and Bartlett's Test	0.64			

표 3. 주공간태도 구성요인

	실내 디자인	공유 공간	환경 설비	프라이 버시	개성 중시	원룸 선호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생활의 변화, 개성에 대응하여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75	.13	-.08	.24	.14	.09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수납가구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중요하다.	.73	.00	.32	-.04	-.01	.05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벽지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수준이 중요하다.	68	-.04	.36	-.08	-.12	06
실내디자인은 입주하기 전에 개인의 취향대로 주문 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66	.29	.17	.10	.05	.05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칸막이벽 설치 등 구조적인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53	.12	-.37	.31	.38	.17
독서나 강습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주거동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08	.73	-.07	.18	.01	.19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이 주거동 내에 설치되어 자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01	.67	.34	.10	.00	.06
임대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계획이 잘 된 녹지 및 조경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18	.65	.27	.03	.15	-.30
간단한 식사를 위한 멀티레스토랑(퓨전식당)이 주거 동 내에 설치되었으면 한다.	-.05	.64	.16	.17	-.02	.31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공간이 필요하다.	.31	.58	-.13	-.04	.18	.15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한 환기시설 및 공기조화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25	.18	.74	.18	.07	.08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21	-.01	.72	-.04	.17	.21
개인생활과 휴식을 위해 방음이 매우 중요하다.	.06	.21	.69	.24	.07	-.05
손님 방문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반드시 유지되는 내부구조가 필요하다.	.16	.03	.18	.78	.02	-.02
손님 방문 시 부엌, 싱크대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시 고려되어야 한다.	.05	.12	.03	.76	-.20	.06
손님 방문 시 접대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02	.25	.11	.69	.34	-.05
주거공간이 다소 좁아지더라도 욕조는 꼭 있어야 한다.	.08	-.03	.11	-.08	.75	.02
주거공간이 다소 좁아지더라도 변소와 욕실은 따로 있어야 한다.	-.02	.17	.04	.06	.68	-.32
기존의 전형적인 주택평면구조에서 탈피하여 개성있고, 독창적인 평면구조가 되어야 한다.	.27	.09	.26	.23	.39	.25
가구는 고정식보다는 접이식(접이식 식탁, 침대 등)으로 하여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	.16	.06	.18	-.06	.64
방을 특별히 구획하지 않는 개방적인 원룸형이 좋다.	.02	.09	.00	-.10	-.18	.59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가구(침대, 의자 등)와 가전제품 및 집기(냉장고, 세탁기 등)가 갖추어져야 한다(furnished).	-.17	.11	.21	-.06	.34	.58
eigen value	2.7	2.5	2.4	2.1	1.8	1.6
communality	12.2	11.3	10.7	9.6	8.0	7.3
KMO and Bartlett's Test	0.72					

였다. 2차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의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인 문항을 제외시켜 19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주생활태도 구성요인과 22 문항으로 구성된 6개의 주공간태도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은 '사교생활 요인', '여가생활 요인', '환경친화 요인', '편리추구 요인'으로 명명하고(표 2), 주공간태도 구성요인은 '실내디자인 요인', '공유공간 요인', '환경설비 요인', '프라이버시 요인', '개성중시 요인', '원룸선호 요인'으로 명명하였다(표 3).

다음으로 주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주공간태도 구성요인과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으로 파악된 총 10개 요인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최종 중심치(final cluster centers)의 차이가 크고 표본에 비례하여 군집별 표본의 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생활양식 유형은 군집분석에 의한 주생활양식 구성요소별 기여점수 및 문항평균을 비교하여 '격식형', '관행형', '여유형', '개인형'으로 명명하였다(표 4).

격식형은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의 사교생활 요인, 환경친화 요인, 편리추구 요인과 주공간태도 구성요인의 프라이버시 요인, 원룸선호 요인, 공유공간 요인에 대하여 높은 양(+)의 값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이다. 친지 또는 친구와 온라인 및 대면적 만남을 즐기고, 환경보호와 환경친화에 관심이 높으며, 교육과 의료의 원격 서비스에도 매우 긍정적인 유형으로 기본적인 가구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개방적인 평면형을 요구하는 한편, 손님의 방문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구성과 문화생활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유공간 서비스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관행형은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의 사교생활 요인에 대한 높은 양(+)의 값과, 편리추구 요인, 여가생활 요인, 환경친화 요인, 그리고 주공간태도 요인의 공유공간 요인에 대한 높은 음(-)의 값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사회적 교류를 제외한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낮고, 개방적이고 개성적인 내부공간에 대한 요구나 서비스 공간이나 시설에 대하여 무관심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여유형은 주생활 구성요인의 여가생활 요인, 편리추구 요인, 사교생활 요인과 주공간태도 구성요인의 공유공간 요인, 환경설비 요인에 대한 높은 양(+)의 값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여가생활에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려는 유형으로, 개성있고 쾌적한 내부공간과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개인형은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의 사교생활요인에 대한 높은 음(-)의 값과 주공간태도 구성요인의 환경설비 요인과 프라이버시 요인에 대한 음(-)의 값으로 특징지어지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요구가 낮고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손님에 대한 배려나 프라이버시 요구가 낮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표 4. 주생활양식 유형의 집단 중심치

주생활양식 요인 \ 집단		격식형 (22.1%)	관행형 (20.0%)	여유형 (25.5%)	개인형 (32.4%)
주생활태도 구성요인	사교생활 요인	.52	.49	.39	-.96
	여가생활 요인	-.50	-.58	.86	.02
	환경친화 요인	.44	-.44	.08	-.09
	편리추구 요인	.41	-.95	.40	-.01
주공간태도 구성요인	실내디자인 요인	.24	.01	-.32	.08
	공유공간 요인	.51	-1.08	.60	-.15
	환경설비 요인	-.26	.05	.56	-.29
	프라이버시 요인	.72	.03	-.32	-.26
	개성중시 요인	-.16	-.10	.36	-.12
	원룸선호 요인	.79	-.53	-.03	-.19

3.3.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주가구 특성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주가구 특성으로 연령, 월소득, 주택규모, 방수에 대한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거주자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이 2·30대 거주자들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주생활 유형에 따라 여유형의 연령이 가장 낮고(M=24.6, S.D.=3.5) 개인형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M=26.9, S.D.=3.2).

표 5. 집단에 따른 거주가구특성: 평균(S.D.)

	격식형	관행형	여유형	개인형	전체	F-값
연령	26.1 (4.1) ab	25.9 (3.3) ab	24.6 (3.5) a	26.9 (3.2) b	25.9 (3.6)	2.9**
월평균 소득	121.8 (67.6)	141.3 (92.4)	140.0 (88.2)	142.3 (57.3)	137.1 (75.7)	0.5(n.s.)
주택 규모	14.7 (6.5)	14.6 (8.0)	13.7 (6.3)	14.9 (9.1)	14.5 (7.6)	0.2(n.s.)
방수	1.4 (1.1)	1.2 (1.1)	1.1 (0.9)	1.2 (1.0)	1.2 (1.0)	0.6(n.s.)

** p<0.5

3.4.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주자 선호

주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거주자 선호는 선호하는 주공간 구성과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설비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주공간 구성에 대한 선호로는 희망하는 주택규모, 방의 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 공간을 분석하였다(표 1).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설비는 가사보조 설비(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강관리 설비(건강변기, 건강보조시스템), 에너지관리 설비(빗물재활용시스템,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 정보·오락관련 설비(초고속 인터넷, 케이블방송시설, 디지털 TV, 홈시어터), 보안 설비(보안시스템, 긴급통보시스템)로 나누어 분석분석을 실시하였다.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11-15평(78 가구, 54.2%)이고 다음이 16-20평(39 가구, 27.1%)이었다.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형의 8-10평(8 가구, 25.0%)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요구가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희망 방수는 2개가 가장 많고(66 가구, 45.5%), 격식형은 원룸형(8 가구, 25.0%)과 방 1개, 관행형은 방 1개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공간으로는 침실(59 가구, 42.1%)과 거실(52 가구, 37.1%)의 비율이 높았고, 격식형은 거실(15가구, 50.0%)을 여유형은 침실(21가구, 58.3%)을 선택한 가구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설비에 대한 분석결과(그림 1) 전체적으로 정보·오락관련 설비와 보안시스템에 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M=4.6, S.D.=0.6)와 케이블 방송시설(M=4.3, S.D.=0.8)은 기본 설비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사보조 설비 중 완전 건조 세탁기에 대한 요구(M=3.8, S.D.=1.0)는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 전자레인지와 인터넷 냉장고와 같은 조리보조 설비와 건강관리 설비에 대한 요구는 보통이하로 낮았다.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격식형과 여유형의 디지털 설비에 대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높고 관행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격식형은 에너지 관리 설비(빗물재활용시스템: M=3.1, S.D.=1.3; 에너지환경관리시스템: M=3.5, S.D.=1.2)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여유형은 정보·오락관련 설비(디지털 TV: M=3.9, S.D.=1.2; 홈시어터: M=4.0, S.D.=1.1)와 보안관련 설비(보안시스템: M=4.2, S.D.=0.9; 긴급상황통보시스템: M=4.1, S.D.=0.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표 6.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의 선호: 빈도(%)

주공간 특성		격식형	관행형	여유형	개인형	전체
희망평형	7평 이하	0(0)	0(0)	1(2.7)	0(0)	1(0.7)
	8-10평	8(25.0)	5(17.9)	4(10.8)	6(12.8)	23(16.0)
	11-15평	16(50.0)	13(46.4)	21(56.8)	28(59.6)	78(54.2)
	16-20평	8(25.0)	8(28.6)	11(29.7)	12(25.5)	39(27.1)
	기타	0(0)	2(7.1)	0(0)	1(2.1)	3(2.1)
전체		32(100.0)	28(100.0)	37(100.0)	47(100.0)	144(100.0)
희망방수	원룸형	8(25.0)	5(17.2)	8(21.6)	9(19.1)	30(20.7)
	방 1개	10(31.3)	9(31.0)	10(27.0)	11(23.4)	40(27.6)
	방 2개	13(40.6)	12(41.4)	17(45.9)	24(51.1)	66(45.5)
	방 3개	1(3.1)	3(10.3)	2(5.4)	3(6.4)	9(6.2)
전체		32(100.0)	29(100.0)	37(100.0)	47(100.0)	145(100.0)
중요공간	침실	9(30.0)	14(48.3)	21(58.3)	15(33.3)	59(42.1)
	거실	15(50.0)	10(34.5)	10(27.8)	17(37.8)	52(37.1)
	DK	2(6.7)	1(3.4)		1(2.2)	4(2.9)
	욕실	4(13.3)	2(6.9)	4(11.1)	5(11.1)	15(10.7)
	기타		2(6.9)	1(2.8)	4(8.9)	7(5.0)
전체		30(100.0)	29(100.0)	36(100.0)	45(100.0)	14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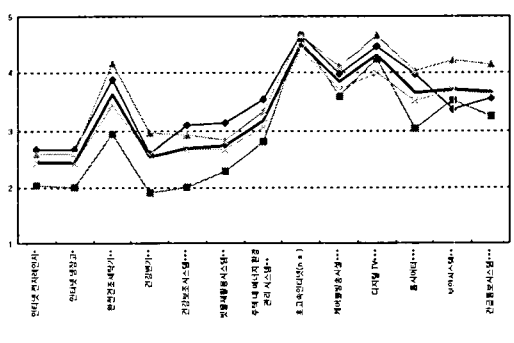

그림 12. 주생활양식에 따른 디지털 설비에 대한 요구

4.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과 이에 따른 거주자 선호를 통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계획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주생활양식 유형은 4개의 주공간태도 구성요인과 6개의 주생활태도 구성요인에 의해 격식형, 관행형, 여유형, 개인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계획은 주생활양식과 거주자 선호를 고려하여 8평에서 20평 사이의 규모에서, 원룸형, 침실 분리형, 침실과 거실확보형 등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조사대상과 같은 가구특성을 가지는 1인 가구의 주택계획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방송시설과 같은 정보관련 설비와 완전건조 세탁기가 필수적인 설비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생활양식에 따라 디지털 설비의 필요 정도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거주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참 고 문 헌

1. 김광현 외(2000), 현대 주거에 나타나는 사성과 공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11).
2. 박수빈(2001), 아파트 거주자의 주요구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3. 심은실(1997),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원룸주택 선호도: 청년기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논.
4. 이기정(2000), 디지털 문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능성 예측 연구, 석논, 연세대학교 대학원.
5. 허현경(1998),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룸형 주택 공간을 중심으로, 석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6. 조명은(1999), 공동주택계획을 위한 신세대 생활양식과 주거선호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7. Horan, T. A.(2000), Digital Places-Building Our City of Bits, ULI.
8. Mitchell, W. J.(1996), City of Bits, MIT Press.
9. _____(1999), e-topia, MIT. Press.
10. Philips Design(1999), Vision of the Future, Philips Corporate Design, Eindhoven.